

## 동양시멘트, '내년 기업공개'

(2004. 3. 29)

비상장사인 동양시멘트가 내년에 기업공개에 나선다.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은 인터뷰에서 “지난 2년간 흑자를 기록한 동양시멘트가 올해도 흑자를 기록하면 상장요건이 충족된다”면서 “(상장요건이) 충족되면 언제든 바로 기업공개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동양시멘트는 동양메이저가 82%, 동양캐피탈 13.1%, 동양파이낸셜 4.9% 등 동양그룹 계열사들이 전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6,000억원 이상의 자산가치를 가진 것으로 평가됐다. 지난해 800억원대의 순이익을 기록한 동양시멘트는 올해도 흑자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 회장은 또 “지난해부터 동양종합금융증권의 합병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 실적이 업계 빅5로 올라섰다”면서 “2007년에는 업계 빅3로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FTA 민관합동논의기구인 ‘열린포럼’ 회장도 맡고 있는 그는 “한·일 FTA는 충분한 검토와 연구를 거쳐야 한다”면서 “서두를 경우 국내 산업계에 엄청난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근 재계가 한·일 FTA 추진에 대해 내심 꺼림칙하게 여기고 있음을 재차 강조한 셈이다.

## 정부, 골재 채취 휴식년제 도입

(2004. 3. 31)

건설교통부와 환경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발생한 수도권 골재파동과 같은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정적인 골재수급을 위해 이같은 ‘광구단위 휴식년제’ 도입을 적극 검토중이다. 광구단위 휴식년제는 골재채취 가능해역을 최대한 많이 확보한 뒤 일정기간씩 돌아가며 골재를 채취하는 것으로 집중채취로 인한 해양환경 파괴 및 집단민원을 줄일 수 있다고 정부관계자는 설명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조만간 해역별 골재 부존량 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또 광구단위 휴식년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행정자치부와 건교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주민 등 모든 관련 부처 및 기관이 참석하는 골재수급심의회를 구성, 운영키로 했다. 한편 연간 골재공급량 1억 2,000만<sup>m</sup>³ 가운데 바다모래는 33%인 4,000만<sup>m</sup>³로 현재는 주로 인천 옹진군(2,000만<sup>m</sup>³)과 충남 태안군(1,100만<sup>m</sup>³) 앞바다에서 채취되고 있다.

## 유진그룹, 인천북항 부두시설 민자투자

(2004. 4. 1)

유진그룹은 계열사인 유진기업과 유진종합개발 컨소시엄이 인천북항 민자부두 시설투자 사업승인을 받고 일반잡화부두 축조 및 기반시설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이번 민자부두 시설투자에는 2만평 부지에 2만톤급 일반잡화부두 1선석 축조와 레미콘 원재료 저장 싸이로(Silo) 1만톤급 4기 및 하역시설, 보관시설 등의 부두를 조성하게 된다. 2004년 4월부터 2006년 10월까지 3년간 총 600억원이 투자되는 민자부두 시설투자에는 상부공사, 항만공사투자 등에 유진기업이 282억원, 유진종합개발이 320억원을 각각 투자하게 된다. 유진그룹측은 항만시설 및 접안료, 부지임차료 등 총 사업비 범위안에서 항만시설을 무상 사용해 투자비를 보전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유진그룹 관계자는 “인천북항 개발사업이 완료되면 2만톤급 선박이 진입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게 되며 원재료수입의 해상운송경로를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중국 시멘트 소비 세계 전체의 50%

(2004. 4. 2)

중국은 전세계 시멘트 소비량의 50%를 사용하고 있으며 세계 전체 석탄 소비량의 31%, 철강의 21%, 원유의 17%를 소비하고 있다. 마카이(馬凱)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은 최근 전국인민대표대회

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이 세계 전체의 4%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마 주임은 “만약 지금의 추세가 계속된다면 중국은 2010년께 국내 시장수요의 60%만 생산할 수 있을 것이며 무한정 수입에만 의존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가 이런 기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지난해 기록한 9.1%의 경제성장률은 물론 올해 목표치인 7% 경제성장률을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경제정책 입안자들은 더 이상 성장을 위한 성장을 추구해서는 안 되며 환경문제나 지속 가능한 성장에 모든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산하 연구기관인 중국거시경제학회도 보고서를 내고 중국의 급속한 경제확장이 심각한 병폐를 야기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보고서는 중국 경제를 해치는 6대 병폐로 과잉투자, 특정 업종의 과잉소비, 공해, 적절한 경제관리 또는 규정의 결여, 자원의 비순환, 낮은 생산성을 꼽았다.

## 드라이 몰탈 시장 급팽창

(2004. 4. 6)

시멘트와 모래, 혼화제 등이 배합된 드라이 몰탈의 수요가 크게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멘트업계는 드라이 몰탈분야를 차세대 주력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공장신설 등에 적극 나서고 있다. 시멘트업계에 따르면 한일시멘트 등 공장 신설계획을 마련하고 있으며 기존 대리점과 특약점 판매망을 통한 매출확대와 함께 직판체계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어서 이 분야의 시장규모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매년 20% 이상 급신장하고 있는 이 시장이 기존 포장시멘트시장을 급속하게 잠식함에 따라 업체별 영업전략 차원에서 드라이 몰탈의 영업망을 확충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지난 1991년 국내 최초로 드라이 몰탈을 도입한 한일시멘트는 인천, 가야 등 5개 공장에서 지난해 206만 8,000톤을 출하, 전년대비 27%의 성장세를 기록했

다. 특히 이 회사는 드라이 몰탈의 브랜드인 ‘레미탈’의 제품인지도를 더욱 높이는 한편 보수·보강 등 새로운 제품개발과 영업부문의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성신양회도 오는 6월 부천공장 준공에 맞춰 영업망을 확충, 시장점유율을 높인다는 복안이다. 이처럼 시멘트 업계가 이 시장을 적극 공략하는 것은 드라이 몰탈이 현장에서 물만 부어 곧바로 사용할 수 있어 건설현장의 생력화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기존 현장비빔방식에 비해 균일한 배합으로 시공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데다 기계화시공에 따른 공기단축의 이점도 부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업계는 드라이 몰탈의 건설현장에서 쓰는 포장시멘트를 급속하게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특히 수도권 건설현장은 현장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드라이 몰탈의 사용이 크게 늘고 있다고 업계 관계자는 설명했다.

## 항만 勞·使·政 무쟁의 선언

(2004. 4. 8)

항만 노사정이 분규없는 한해를 선언했다. 비록 지난해 파업을 벌였던 전국운송하역노조 화물연대가 아직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는 않고 있지만 항만 노사정의 무쟁의 선언은 올 춘투를 앞둔 다른 산업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과 한국항만물류협회·해양수산부 등 항만 노사정은 7일 오전 해양부 청사에서 ‘항만평화합의서’에 서명했다. 노사정은 이날 항만경쟁력 강화 협력, 항만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복지향상 노력, 항만 세일즈 공동 전개, 항만 현대화 공동 추진, 항만 하역요금 인상률(4.5%)에 근거한 올해 임금협상 체결 등 5개항에 합의했다. 노사정 대표들은 선언문에서 “항만물류산업 발전과 항만노사관계 안정이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의 관건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한다”며 “최근 국내경제가 내수부진과 투자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해 안정된 노사관계로 경제활성화에 적극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항

사에는 노사정 대표를 비롯해 해양부 실·국장급 간부 전원과 각 지방 향운노조 대표, 향만물류협회 회장단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 400조원 부동산자금, 사회간접자본 사업에 투자 (2004. 4. 9)

강동석 건설교통부 장관은 8일 대한상공회의소 주최 초찬간담회에서 “400조원에 가까운 시중 부동산자금과 연기금을 건설 분야로 끌어들이며 민자사업을 활발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강장관은 또 “현재 건교부에 신청된 민자사업은 수도권 주변 도로건설에 집중돼 있고 건설회사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면서 “민간펀드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업체를 선정할 때 펀드 투자비중이 높은 쪽에 가점을 주는 방안을 내부방침으로 정했다”고 말했다. 강장관은 “민자사업의 범위를 단순 도로건설에서 상당 규모의 복합적인 개발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면서 “건교부 산하 도로공사·토지공사 등 공기업의 자산담보부유동화증권(ABS) 발행을 늘려 시중 부동산자금이 SOC에 투자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 부분은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장관은 “국내 건설산업이 세계시장으로 뻗어나가고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강장관은 도로확장과 증설은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올해를 기점으로 도로보다 철도쪽에 더 많은 투자를 해나갈 것이라면서 지난 10년간 국내총생산(GDP)의 12%에 달한 국가물류비를 오는 2010년까지 선진국 수준인 10%로 감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 올 건설경기 경착륙 조짐 (2004. 4. 10)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지난 2002년

2.8%에 그쳤던 건설업 성장률이 2003년에는 민간 건설경기가 활기를 띠면서 8.1%로 급상승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같은 연간 건설업 성장치는 지난 1996년(8.9%) 이후 7년래 최고치다. 지난해 건설업은 항만·도로 건설등 정부건설은 0.5% 성장에 그쳤지만 주거용·상업용 건물건설을 중심으로한 민간 건설이 13.5% 급신장하면서 건설업 성장세를 주도했다. 그러나 지난 한해동안 호황을 구가하면서 수출과 함께 국내경기 급락을 막는 ‘버팀목’ 역할을 했던 건설업이 울들어 급격히 위축되면서 경기회복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통계청 분석결과 국내 건설경기를 가늠할 수 있는 건설수주액이 지난해에는 22.5% 증가했으나, 올 들어서 1월 -14.3%, 2월 -23.9%의 급락세로 돌아섰다. 특히 지난해 31.6%의 기록적인 증가율을 보였던 민간 건설수주액이 올 들어서 1, 2월 각각 -27.2%, -32.6%를 기록하는 등 공포 얼어붙었다. 건설업은 지난 1998~2000년까지 3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하다가 2001~2003년까지 3년 연속 플러스(+) 성장률을 기록한 바 있어 올해 다시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다.

### 쌍용양회, 부산공장 준공 (2004 4. 11)

쌍용양회는 부산 감천항내에 2만톤급 규모의 시멘트 저장·출하시설을 갖춘 부산공장을 신축하고 10일 준공식을 가졌다고 11일 밝혔다. 이 공장은 1만톤급 규모의 시멘트 저장 싸이로 2기와 첨단자동화 출하설비를 갖춘 최신식 공장으로서 하루 4,300톤의 시멘트를 부산지역과 인근 김해, 창원, 마산 등에 공급하게 된다. 쌍용양회는 지난 1970년부터 부산항 4부두 인근에 부산공장을 가동하기 시작, 34년간 이 지역의 공장, 주택, 도로, 항만 등의 건설현장에 총 3,150만톤의 시멘트를 공급해 왔다. 하지만 부산항 개발계획에 따른 관계 당국의 공장 이전 요청

과 공장시설 노후화 등에 따른 효율성 문제로 지난해부터 공장 신축에 들어가 총 330억원을 투자, 이번에 공장을 준공했다. 쌍용양회는 부산공장의 준공으로 영업경쟁력 강화는 물론 물류비 절감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날 준공식에는 명호근 쌍용양회 부회장과 시공사 및 협력사 임직원 1백여명이 참석했다.

## 유연탄 확보 어려움 가중

(2004. 4. 12)

중국에 이어 호주도 석탄수출 쿼타제를 도입함에 따라 유연탄 다소비업종인 시멘트업계와 포스코, 한국전력 등 국내 기업들의 유연탄 확보에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KOTRA에 따르면 세계 주요 석탄 수출국가인 호주가 4월부터 석탄에 대한 수출쿼타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호주 공정거래위원회는 선적설비 부족에 따른 채선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현지 석탄업체들에게 뉴캐슬항을 통해 내보내는 석탄 수출물량을 지난해의 90% 수준까지만 허용키로 했다고 KOTRA는 설명했다. 국내 유연탄 수입량은 지난해 기준으로 모두 6,530만톤이며 이중 호주산이 2,533만톤, 중국산이 2,653만톤, 인도네시아산이 646만톤이 들어왔다. 올들어 지난 2월까지 국내에 수입된 유연탄은 호주산 449만톤(1억 8,990만달러), 중국산 303만톤(1억 2,340만달러), 인도네시아산 219만톤(9,030만달러)였다.

## 레미콘공장 사후관리 강화

(2004. 4. 17)

기술표준원에 따르면 레미콘 혼화재료에 고로슬래그미분말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레미콘 KS 규격(KS F 4009) 개정에 따라 계도기간이 끝나는 5월 1일부터 원자재의 관리를 포함한 심사기준을 본격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표원은 주요 원

자재인 시멘트의 인수검사는 입고 때마다 실시하되 양질의 제품으로 인정될 때에는 제조공장의 시험성적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혼화재료로 추가된 고로슬래그 미분말과 콘크리트용 실리카폼의 관리방법도 명확히 하기로 했다. 골재의 검사항목 중 밀도는 원칙적으로 절전밀도를 기준으로 하되 표전밀도를 배합설계에 반영할 경우에는 이와 관련된 시험 데이터를 확보하도록 했다. 인공경량골재나 부순잔골재, 부순굵은골재, 콘크리트용 고로슬래그 잔골재 및 굵은 골재 등의 중량단위는 ISO규격에 맞게 질량단위로 개정됐다. 기표원은 또 팽창재나 플라이애쉬, 고로슬래그미분말, 실리카폼 등 혼화재료 사용시 레미콘에 혼입할 혼화재료명과 사용량(치환율로 계산)을 수요처에 사전승인을 얻도록 하는 한편 레미콘 품질변화에 영향이 큰 플라이애쉬의 강열감량, 고로슬래그 미분말의 비표면적(분말도)에 대한 시험은 입고시마다 자체 또는 외부시험을 통해 확인, 관리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 KDI, 건설투자 1.1% 증가 그칠 듯

(2004. 4. 20)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일 발표한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지난해 12월 예상했던 2.1%의 올해 건설투자 증가율을 절반 수준인 1.1%로 수정·전망했다. KDI는 올해 건설투자 증가율의 경우 지난해 3/4분기에는 4.3%로 예상했다가 12월께 2.3%로 수정한데 이어 이번에 또 낮춰 잡은 것으로 대책 및 민간연구기관 통틀어 가장 낮은 예상치를 내놓았다. 지난해말 LG경제연구원은 3.7%로 가장 높은 전망치를 내놓았고 △건설산업연구원 3.3% △삼성경제연구원 3% △현대경제연구원 2.8% △금융연구원 2.6%의 건설투자 증가율을 제시했었다. KDI는 이같이 건설투자 증가세가 둔화되는 것은 지난해 건설투자 급등에 따른 기술적인 반락과 함께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 SOC 관련 예산 감소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KDI는 그러나 저금리 상태가 지

속되고 전반적인 경기가 회복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의 건설투자는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분기별로는 1/4분기 0.1%에서 2/4분기 1.3%, 3/4분기에는 1.5%로 다소 높아지지만 4/4분기에는 다시 1.1%로 낮아지면서 저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 주택건설 감소세, 52만호 건설 차질 가능성 (2004. 4. 29)

올들어 아파트 등 주택건설 실적이 지난해에 비해 크게 감소하는 추세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3월 주택건설(사업승인 또는 건축허가 기준) 실적을 집계한 결과 2만 4,000가구로 전년 동월대비 47%인 2만 2,000가구가 감소했다고 밝혔다. 올 1분기 누적 건설실적도 총 6만 4,000가구로 전년 같은기간보다 42%(4만 5,000가구)가 줄었다. 3월 지역별 주택공급 실적은 수도권이 12만가구로 지난해 같은달 대비 62%가 감소했고, 충청권도 5만가구로 전년 동월대비 53%가 줄었다. 또 서울 지역은 10만가구가 공급돼 지난해 3월보다 42%가 낮아졌고, 지방도 12만가구 공급에 그쳐 작년 같은달보다 22%가 감소했다. 건교부는 이에 따라 공급실적 확대를 위해 대한주택공사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주택 발주를 서두르도록 할 방침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현재 공급 추세라면 올해 주택건설목표인 52만가구 달성이 힘들 수도 있다”며 “국민임대주택 건설 및 화성신도시 개발사업을 조기 발주하고 민간주택건설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 국내 첫 폐광 복원 후 골프장 조성 (2004. 5. 7)

환경파괴적 잔재로 눈총을 받아왔던 폐광지역이 복원과 함께 산뜻한 퍼블릭 골프장(9홀)으로 단장되고 있다. 폐광을 복원해 골프장을 조성한 사례는

캐나다 밴쿠버의 부차드 가든이 있으나 국내에서는 이번이 처음이어서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충북 단양군 매포읍 고양리 산 6번지 해발 220~315m에 위치한 44만 1,000여㎡는 현대시멘트 석회석 광산으로 석회석을 캐낸 뒤 수십년간 폐광으로 방치돼 왔던 곳이다. 현대시멘트와 현대성우리조트는 석회석을 채굴하기 위해 파헤쳐진 채 보기 흉하게 방치돼 오면서 아랫마을 주민들의 민원이 잇따랐던 이곳에 지난해 10월부터 환경친화적인 골프장 건설에 착수, 현재 50% 가량의 공정을 보이고 있는데 오는 9월 말에는 개장할 수 있을 전망이다. 특히 주 5일 근무와 급증하는 골프 이용객에 비해 단양 지역에는 골프장이 없었으나 이 골프장이 개장할 경우 단양은 물론 중앙고속도로를 이용, 수도권과 대구, 경북 지역에서도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단양팔경 등 주변에 관광 유적도 풍부해 벌써부터 골퍼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 수도권 레미콘 공급재개 (2004. 5. 1)

모래채취 금지와 레미콘 단가 인상을 둘러싸고 중단됐던 수도권 레미콘 공급이 1일부터 재개됐다. 산업자원부와 레미콘업계는 인천 웅진군이 모래 채취를 허가하면서 모래 재고상황이 개선돼 조업재개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웅진군은 “해사채취 업체별 허가량과 실제 채취량 등에 대한 감시활동을 벌일 주민 감시원(16명) 채용 등 주민 요구사항을 수용해 해사 채취를 재개하는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웅진군은 6월말까지 올해 전체 채취량(1,600만㎡) 중 241만㎡를 채취하도록 허가했다. 이와 함께 수도권 레미콘업계와 건설업체간 레미콘 가격협상도 극적으로 타결됐다. 협상에서 레미콘업계와 건설업체 대표단은 양측이 당초 제시한 인상률에서 한발씩 양보해 레미콘 단가를 루베(㎡)당 2,100원, 평균 3.8%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그동안 레미콘업계는 6%, 건설업체는 3% 인상률을 요구했다. 건설사측은 “협상

타결로 1일부터 레미콘 공급이 재개됨에 따라 공사 차질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역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레미콘업체들은 인천 옹진군 주민 반발로 모래 채취가 중단되자 재고 모래 부족 등을 이유로 지난 28일부터 조업을 중단했다.

## || 올들어 레미콘 수요 하향세 지속 (2004. 5. 8)

올들어 수도권의 건설수요가 감소하면서 레미콘 수요의 하향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더욱이 최근 건축허가면적이나 건설수주가 하락세로 꺾이면서 이 같은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레미콘업체에 따르면 수도권 181개 공장에서 올들어 지난달 말까지 건설현장에 공급된 레미콘은 관수 132만 7,000m<sup>3</sup>와 민수 1,457만m<sup>3</sup>를 포함해 모두 1,590만 4,679m<sup>3</sup>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의 1,734만 9,000m<sup>3</sup>보다 8.3%가 감소한 수준이다. 월별 증감률도 1월에 15.7%가 감소한 이후 2월 -2.5%, 3월 -6.9%, 4월 -9.3%로 4개월 연속으로 작년 출하량에 미치지 못했다. 특히 레미콘 업체들은 올들어 건축허가나 건설수주 물량의 감소가 이어지면서 앞으로 레미콘 출하량의 감소세가 지속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올해 1/4분기 전국의 건축허가면적은 2,362만 1,000m<sup>2</sup>로 작년동기 3,266만 4,000m<sup>2</sup>보다 27.7% 줄었다. 3월에도 전국의 건축허가 면적은 914만m<sup>2</sup>로 지난해 같은달보다 32.8% 감소했으며 특히 수도권은 439만 9,000m<sup>2</sup>가 허가되는데 그쳐 43.8%나 급감했다. 레미콘 업체는 이 같은 선행지표의 추세와 경기동향, 정책 등을 감안할 때 앞으로도 수도권의 레미콘출하 감소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 2020년까지 도시용지 3,848km<sup>2</sup> 필요 (2004. 5. 11)

오는 2020년까지 도시용지 3,800여km<sup>2</sup>의 추가공

급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도시용지의 원활한 공급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는 토지적성평가 대상확대 등 제도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토연구원의 채미옥 연구위원은 11일 연구원이 발간한 월간 잡지 '국토 5월호'에서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서 추계한 2020년계의 도시용지 규모는 전국토의 9.3%인 9,220km<sup>2</sup>(현재 5.6%인 5,570km<sup>2</sup>)에 달한다"면서 "따라서 오는 2020년까지 3,848km<sup>2</sup>의 도시용지가 추가로 공급돼야 한다"고 밝혔다. 채 연구위원은 "이처럼 도시용지가 많이 필요한데도 전국의 82%가 이미 개발됐거나 보전지역으로 묶여 있어 사실상 추가로 개발할 수 없는 땅"이라면서 "특히 수도권은 88.6%, 서울과 인천을 제외한 5대 광역시는 90.8%가 신규개발이 어려운 땅"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용도지역별로는 주거, 상업, 공업지역은 상당수가 개발돼 있거나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토지이고 생산녹지의 경우는 면적이 1,267km<sup>2</sup>에 불과해 활용도가 떨어진다"면서 "국공유지나 기존의 보전지역 중 일부를 해제하지 않는 한 도시용지의 주공급원은 관리지역(옛 준농림지와 준도시지역)이 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 || '첫 순환골재 콘크리트' 적용, 정부 시범 신축건물 완공 (2004. 5. 14)

(사)한국순환골재협회는 순환골재를 콘크리트 레미콘에 적용해 인선ENT(주) 기업부설연구소 신축을 완료했다고 14일 밝혔다. 시범사업은 인선ENT(주)에서 생산하는 재생 굵은골재를 구조용 굵은 골재로 일부 치환, 적용하는 공사로 인선ENT(주) 부설연구소의 콘크리트 구조체 공사에 재생 굵은골재를 30% 대체 적용했다. 순환골재협회에 따르면 국내 천연골재 사용량은 연평균 2억 4,798만 8,000m<sup>3</sup>에 달하며 순환골재 생산가능량은 그 4% 수준에 해당하는 1,000만m<sup>3</sup>에 이른다. 이같은 순환골재를 천연골재 대신 대체 사용할 경우 4% 상당

의 골재 채취에 필요한 석산과 하천개발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인선ENT(주)가 우수한 품질의 순환골재 생산을 확대하고 품질에 따라 건축 구조용까지 포함한 광범위한 재활용이 활발하게 이뤄지면 골재산업 분야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순환골재협회는 내다봤다.

**동양시멘트, 해상수송 연 700만톤 확대, 첨단 벌크선 '세양호' 투입**  
(2004. 5. 26)

동양시멘트는 최근 80만톤 수송능력을 갖춘 첨단 벌크선인 세양호를 시멘트 해상운송에 투입, 연간 수송능력을 700만톤으로 확대했다고 25일 밝혔다. 동양시멘트는 이번 세양호 운항으로 10척의 시멘트운반선을 보유하게 됐으며 전체 시멘트 생산량의 75%를 해상수송하게 됐다. 동양시멘트는 앞으로 해송 물류 인프라를 더욱 강화시켜 우리나라를 비롯한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물류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다. 회사 관계자는 "최첨단 벌크선인 세양호 투입으로 일본 수출은 물론 부두여건이 열악한 지역으로도 신속하고 안전한 수송이 가능해 전체 운항효율이 크게 높아지게 됐다"고 말했다.

**대우산동시멘트, 올해 흑자전환**  
(2004. 5. 27)

대우인터내셔널은 해외투자법인인 중국 대우산동시멘트가 중국 건설경기 회복으로 흑자로 돌아섰다고 27일 밝혔다. 대우산동시멘트는 중국 건설경기 악화 등의 영향으로 작년까지 경영실적이 부진했으나 올들어 현지 건설경기가 살아나면서 지난 4월까지 매출 2,636만달러, 순이익 240만달러를 달성했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대우인터내셔널 관계자는 "2008년 베이징올림픽 등을 앞두고 중국 건설경기가 회복되고 있는데다 시멘트 판매단가 상승으로 매

출과 이익이 크게 늘고 있어 본사의 지분법평가이익에 상당한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성신양회, 북한 모래 트럭으로 실어온다**  
(2004. 5. 31)

정부에 따르면 남북경계선에 위치한 북한 황해남도 관문군 평화리의 사천강에서 채취한 모래가 경의선 임시도로를 통해 내달 4일부터 반입될 예정이다. 통일부는 성신양회와 씨에스글로벌이 제출한 북한 사천강 모래 육로 시범운송 신청에 대해 수송장비은행, 장비반출을 승인하고 관련인원에 대해 북한방문 증명서를 발급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성신양회는 6월 4일부터 6일까지 경의선 임시도로를 거쳐 북한 사천강 모래 약 1,000m<sup>3</sup>를 시범운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본격적인 추가 운송사업은 그 결과에 따라 조정될 예정이다. 이번 육로 첫 반입은 성신양회의 막후작업의 성과로 평가되고 있다. 사업을 진두지휘했던 성신양회 정동인 상무는 "그동안 북한모래의 육로수송을 위해 20여개 업체가 사업을 추진했으나 성신양회가 북한측과의 계약은 물론 통일부의 승인에 이르기까지 어려운 고비를 극복하고 육로수송의 첫장을 열었다"고 심정을 밝혔다. 정 상무는 특히 "오늘(5월 31일) 모래채취를 위한 샘플장비와 인력이 북한에 들어간 후 4일부터 육로를 통해 반입되며 본격적인 채취를 위한 장비는 6월 중순 북한으로 들어가 오는 7월 1일부터는 북한산 모래가 국내 건설현장에 공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성신양회가 북한측 거래처와 계약한 물량은 올해 50만m<sup>3</sup>를 시작으로 내년부터는 연간 200만m<sup>3</sup>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일본, 4월 시멘트 판매 1.4% 증가**  
(2004. 5. 29)

일본 시멘트협회에 따르면 4월의 시멘트 총 판매

량은 전년동월대비 1.4% 증가한 543만 4,323톤으로 3개월만에 전년동월 실적을 상회했다. 일본 국내 판매량은 0.8% 감소한 452만 4,818톤으로 27개월 연속 감소했지만 수출이 13.8% 증가한 911만 135톤으로 12개월 연속해서 증가했다. 4월말의 재고량은 전년동월말에 비해 11.4% 감소한 420만 4,198톤이었다.

## 정부, SOC투자사 부동산 세액 감면

(2004. 6. 2)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SOC 시설투자 등 대규모 사업에 자산을 운용하기 위해 설립한 투자회사의 취득 부동산에 대해 취득·등록세 감면 혜택이 부여될 전망이다. 또 설비투자 촉진을 위한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의 적용기한이 올해말까지 6개월 연장되고 건설업체도 기숙사 신축 및 구입비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일 오전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및 시행령 개정안 등 8건의 법률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의결안에 따르면 정부는 회사의 자산을 사회간접자본시설 투자 등에 운용하기 위해 설립한 투자회사가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50% 감면해 주기로 했다. 나아가 해당 회사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설립된 경우에도 인구유발효과가 적은 점을 감안해 등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규정했다. 정부는 설비 등 투자금액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의 적용기한도 이달말까지에서 연말까지로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또한 내달부터 2006년 6월말까지 기간 중에 일정 인원 이상을 고용해 고용창출 효과를 가졌을 창업기업이나 분사기업에 대해선 소득발생일부터 5년간 납부할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고 결산공제 이월공제기간도 연장하는 등 한시적 세제지원책을 실시하기로 했다.

## 정부, 18개 대형건설사업 우선 추진

(2004. 6. 7)

정부부처별로 내년 예산책정작업이 한창인 가운데 지난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해 경제성이 인정된 18개 대형투자사업 대부분이 내년도 신규사업 최우선 순위로 꼽히고 있다. 5일 기획예산처와 관련부처에 따르면 기획예산처는 지난해 32개 대형투자사업을 대상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벌여 이 가운데 18개 사업을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판정했고 올해부터 도입된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Top Down)에 따라 내년 세출예산을 짜고 있는 해당부처들은 이들 18개 사업을 중심으로 신규사업비를 배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18개 사업은 건교부 소관이 경원선 전철 연장(동안~소요산), 지방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 한강하류권급수 체계 구축 1차사업, 백궁~수원 복선전철 건설, 광양시(덕례~용강) 대체우회도로, 춘천~양양간 고속도로, 군산선(익산~대야) 복선화, 이안천댐 건설, 신안산선 복선전철(안산~청량리), 임진강 군남홍수조절지 축조, 정읍~순창간 국도21호선 확장, 함양~울산간 고속도로 등 13개 사업으로 가장 많다. 또 해양부 소관은 광양항 서측 인입철도 건설, 부산신항 서컨테이너부두 건설, 광양항 컨부두(울촌지구) 건설, 평택항 서부두 건설 등 4개 사업이고 교육부 소관은 양산부산대학교병원 건립 1개 사업이다. 또 해양부의 부산신항 서컨테이너부두 건설, 광양항 컨부두(울촌지구) 건설, 평택항 서부두 건설 등 3개 사업은 민간투자사업이다. 따라서 이들 7개 사업을 제외한 11개 사업(건교부 소관 9개, 해양부·교육부 소관 각 1개)이 내년 신규사업 물망에 오르고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에 따라 부처내에서 사업비를 배정했다 하더라도 신규사업인 경우에는 별도로 기획예산처의 심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사업추진 여부는 기획예산처의 심의가 끝나야 확실해진다”고 말했다.



## 정부, 대규모 공장 신·증설 허용 (2004. 6. 15)

건설교통부는 14일 계획적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자체의 신속한 도시계획 수립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위지침 6종을 개정,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우선 제1종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을 개정, 비도시지역에서 산업 및 관광휴양시설 등의 신·증설 및 개발계획 수립을 쉽게 처리할 수 있게 개선했다. 산업형 및 유통형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면적제한(33만<sup>2</sup>m<sup>2</sup>)을 폐지, 그 이상으로 시설의 신·증설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 이천의 금강고려화학과 강원·충청권에 소재한 현대시멘트·아세아시멘트 등 부지면적 제한으로 공장증설을 하지 못했던 업체들이 보다 쉽게 시설 확대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시멘트업체들은 지난 2000년 난개발 방지대책으로 인해 현재 공장부지가 30만<sup>2</sup>m<sup>2</sup>의 한계에 도달, 증설에 어려움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 기업도시 후보지 연내 1~2곳 선정 (2004. 6. 24)

기업이 개발권을 갖고 조성하는 '기업도시' 후보지 1~2곳이 연내 선정된다. 또 기업도시 건설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도 적극 추진된다. 건설교통부는 전경련이 추진중인 기업도시 건설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내 지원체제를 가동하는 한편 연내 1~2곳의 기업도시 시범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시범사업지는 최근 전경련에 기업도시

유치를 신청한 9곳(원주·익산·군산·무안·광양·포항·김해·진주·서귀포) 중에서 선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 경기도, 평택항 배후지 48만평 개발 (2004. 6. 28)

경기도는 평택항만구역내에 조성되고 있는 준설토투기장 456만평중 조기개발이 가능한 48만평을 1단계로 우선 개발키로 하고 최근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과 배후단지 지정신청 연구용역을 체결, 오는 11월까지 완료키로 했다고 밝혔다. 도는 내년 초 해양수산부에 항만배후단지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며 승인이 나는 대로 오는 2007년까지 단지조성 사업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이 일대를 물류·유통·조립·가공·제조·연구·벤처·상업·업무·친수·위락 등의 각종 기능을 갖춘 항만물류 집적단지 조성, 국내·외 투자기업과 다국적물류기업을 유치할 예정이다. 도는 2007년 1단계 개발이 완료되면 나머지 준설토투기장에 대해서도 연차적으로 개발계획을 수립, 단지규모를 확장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도는 물류단지 조성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철도 및 도로 등 SOC인프라도 적극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서해안고속도로에서 포승국가공단을 거치지 않고 직접 진입할 수 있도록 평택항 IC를 건설하고 평택~포승간 산업철도를 조기에 개설했으며 각종 국도 확·포장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현재 평택항 동부두는 1~4번 선석까지 완공됐으며 5번 선석은 오는 9월, 6~8번 선석은 내년 9월부터 2006년초 사이에 각각 완공될 예정이고 9·10번 선석은 기아자동차가 현재 건설중이다.